

## 셰익스피어의 혼령들

이 경 식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요정을 부리는 마술(magic)의 극적 활용에서 보인 셰익스피어의 우수성을 처음 언급하고 호평한 비평가는 Dryden이었다. 아마도 요정들과 마찬가지로 혼령들의 극적 활용에서 보인 셰익스피어의 우수성을 본격적으로 발굴하여 언급하고 호평한 최초의 비평가는 William Smith였을 것이다. 그는 Longinus의 'On the Sublime'을 원문에서 영역하고 여기에 주석과 평을 곁들여 출판한 글에서 혼령들은 요정들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이 마술의 원 안에서 위엄을 지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셰익스피어뿐('Ghosts are very frequent in *English Tragedies*; but Ghosts, as well as Fairies, seem to be the peculiar Province of *Shakespeare*. In such Circles none but he could move with Dignity')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Hamlet*의 혼령은 시종 경외롭고 장엄한 극도의 중후함을 지닌 혼령으로 소개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Banquo*의 혼령이 등장할 때는 심상들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부각되어 있고, 높은 정도의 공포심으로써 우리의 상상 속에 각인 된다고 호평했다.<sup>1)</sup>

죽은 사람이 혼령으로 다시 지상으로 귀환하여 그의 가족이나 친지 혹은 그를 살해한 원수를 방문하는 셰익스피어 극은 *R3*, *JC*, *Hamlet*, *Macbeth*, *Cymbeline* 등 5 개이나, 기타 종류의 유령들도 역사극 *1H6*, *2H6*, *H8*와 비극 *Macbeth*에 등장한다. *R3*, *JC*, *Hamlet*, *Macbeth* 등 4개 극에 나타나는 혼령의

---

1) William Smith, *Dionysius*, 'On the Sublime': Translated from the Greek, with Notes and Observations (1739; 2nd Edn, corrected and improved, 1743), in *Shakespeare: The Critical Heritage*, ed Brian Vicker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5), iii, p. 100.

목적은 복수이다. 햄릿 왕의 혼령을 제외한 이 혼령들은 자신을 살해한 자의 꿈속에 나타나서 복수를 다짐하거나 상상 속에 나타나 말은 하지 않으나 겁을 줌으로써 심적인 압박을 가하여 그를 파멸시키는 데 일조 한다. 햄릿 왕의 혼령은 아들의 친구들과 아들에게 나타나며, 그의 아들에게는 명시적으로 복수를 명한다.

Shakespeare의 혼령은 주관적 혼령(subjective ghosts)과 객관적 혼령(objective ghosts) 등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2)</sup> 전자는 꿈속에 나타나는 혼령들, 한 사람밖에 본 적이 없는 혼령,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을 때라도 그 중의 특정한 한 사람, 밀접하게 관련된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혼령 등을 지시하고, 후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보임으로써 그 존재에 대한 객관성을 입증한 혼령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Shakespeare의 극에 등장하는 혼령 중에서 Bosworth 전투를 앞두고 Richard 왕이 꿈속에서 보는 혼령, Brutus가 Sardis에서 Philippi의 결전을 하루 앞둔 날 밤 꿈속에서 보는 Caesar의 혼령, Macbeth가 저녁 만찬장에서 보는 Banquo의 혼령 등 거의 대부분은 주관적인 혼령들이고, King Hamlet의 혼령만이 객관적 혼령의 모든 의미에 들어맞는 유일한 혼령이다. 그러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도 있다. E. E. Stoll은 셰익스피어의 모든 혼령들이 햄릿 왕의 혼령만큼 사실적이고 실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는 혼령들이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사실과 더불어 충분히 구체적이고 상황들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점('full, material, and circumstantiated')을 들었다. H8의 4막 2장 82행과 83행 사이에서 죽어 가는 Katherine 왕비가 잠든 주변을 돌며 춤추는 6개 화평의 영들('spirits of peace')도 왕비의 상상력의 'figments(꾸며 낸 것들)'로 풀이할 수 없는데 하물며 Richard와 Richmond의 꿈속에 나타나는 혼령들을 이 두 사람의 양심의 'figments'로 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3)</sup> 한편 Stoll과는 상반되게 W. W. Greg

2) Cumberland Clark, *Shakespeare and the Supernatural* (London: Williams & Norgate, Ltd, 1931), pp. 77-8. 아마도 Clark는 객관적인 혼령과 주관적인 혼령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였을 것이다.

3) E. E. Stoll, 'The Ghosts', in his *Shakespeare Studies: Historical and Comparative in*

는 Richard와 Richmond에게 말하는 혼령들의 ‘객관적 효력(objective validity)’이 Katherine의 주위를 돌며 춤추는 여섯 혼(spirits)의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sup>4)</sup> Stoll은 세익스피어의 혼령들 모두의 객관성을 인정하나 Greg는 햄릿 왕의 혼령을 제외한 모든 세익스피어의 혼령들의 객관성을 부인한다. 그러면 세익스피어의 주관적 혼령과 객관적 혼령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I

1H6의 5막 3장 서두에서 인간 마녀 ‘La Pucelle’/‘Joan de Pucelle’(Joan of Arc)는 주술로 악령들을 불러낸다. 이들은 걸어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할 뿐 머리를 숙인 채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묵묵부답이나 말을 알아듣는 듯 마녀가 도와달라는 부탁에 머리를 가로 젖고, 부탁을 외면하고 떠나간다.

2H6의 1막 4장에서 마녀(Margery Jordan), 두 신부(Hume과 Southwell), 요술쟁이(conjurer Bolingbrook)가 등장하여 공작부인 Eleanor를 위해 귀신을 불러낸다. 요술쟁이가 주문을 읽자 천둥치고 번개가 무섭게 일면서 귀신이 솟아올라 ‘Adsum’(내 여기 있소)(23행)이라 말하니 마녀가 그것을 ‘Asmath’(Satan?)이라 칭하면서 그것이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는 말에 답하라고 명한다. 질문은 요술쟁이 Bolingbrook가 한다. 귀신은 왕이 장차 어찌 될 것이냐는 물음에 ‘The duke yet lives that Henry shall depose;/But him out-live, and die a violent death’(30-1)로, Suffolk 공작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By water shall he die, and take his end’(33)로, Somerset 공작은 어떻게 될 것인가란 질문에는 ‘Let him shun castles./Safer shall he be upon the sandy plains’(35-6)로 각각 대답한다.<sup>5)</sup>

*Method* (New York: Frederick Ungan Publishing Co, 2nd ed, 1942, 1960), pp. 220-21.

4) W. W. Greg, ‘Hamlet’s Hallucination’, *MLR*, Vol. XII, No. 4 (October 1917), p. 393.

5) 세익스피어의 본문 인용은 G. B. Evans의 *The Riverside Shakespeare*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74, 2nd edn 1997)에서 함. 이 Shakespeare edition의 대괄호(square brackets)는 그 속의 본문이 의문시될 수 있다는 표시이다.

*H8*의 4막 2장에서 병약하고 노쇠한 Katherine(Henry VIII세의 왕비였다가 이혼 당한 여인)이 Griffith와 Patience 두 남녀의 부축을 받으면서 등장하여 이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하듯이 대화를 하다가 슬프고 엄숙한 음악 소리에 잠든다. 이 잠 속에서 그녀는 환영('Vision')을 본다. 소복 차림을 한 그리고 머리 위에는 화관들을 쓴 여섯 명의 사람들이 월계수 나무 가지들과 잎들을 들고 나와 춤도 추고, 화관을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놓기도 하면서 큰 절로 예의도 표하니 수면 중에서도 그녀는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쳐들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잠에서 깬 그녀는 이들을 '화평의 귀신들(Spirits of peace)'(83)이라 부르며 이들이 떠나간 것을 아쉬워한다. 그녀는 그들을 다시 불러보았으나 와서 대령한 사람은 귀신들이 아니라 그녀의 남녀 시종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자고 있을 때 누가 들어오는 것을 못 보았느냐고 묻고, 그들이 못 보았다고 하자 자신을 연회에 초대하고, 태양 같은 얼굴빛으로써 화관도 가져다주며 영원한 행복('eternal happiness', 90)을 약속해 준 이 축복 받은 무리('blessed troop', 87)를 보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번에는 *Cymbeline*의 5막 4장에 나타나는 유령들을 살펴본다. 옥중에 있는 Posthumus에게 그의 부친 Cicilius Leonatus가 그의 아내이며 Posthumus의 어머니인 Matron을 대동하고 음악과 함께 등장하며, 이어서 다른 음악이 나오면서 Posthumus의 두 남동생들이 아직도 전사할 때의 부상을 그대로 지닌 채 출현하여 누워서 잠자고 있는 Posthumus를 빙빙 돈다. 이 유령들은 신들의 왕인 Jupiter 신에게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 없이 옥고를 치르는 그들의 아들과 형의 불행을 제거해 달라고 호소한다(75-92). 이 호소에 응하여 Jupiter 신이 천둥과 번개 속에 내려와 독수리 위에 앉아서 벼락을 떨어뜨리니 혼령들은 무릎을 꿇는다.

Jupiter 신은 지하의 하찮은 귀신들이 감히 지고의 신을 불러내는 등의 무례한 짓거리를 그만 하라고 우선 꾸짖는다. 그는 이들을 'Poor shadows of Elysium'으로 부르면서 결코 시들지 않는 황천의 꽃 독에서 쉴 것이며, 더 이상 유한한 인간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이며, 이런 일은 혼령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신인 바로 자신의 일임을 확실히 해두고 있다. 그는 그들에게 낮은 곳에 놓혀 있는 아들을 끌어 올려서 그의 시련을 끝내 주겠다고 약속한다. Jupiter는 특히 Posthumus가 출생할 때 자신의 'Jovial star'(목성-planet Jupiter)가 통치했고, 그의 사원에서 Posthumus가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적극 돕는다는 함축적인 말도 한다. 무릎을 꿇고 있는 영들에게 일어나 사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Imogen의 남편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번의 고생으로 더욱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기 전에 Jupiter는 쪽지를 하나 떨어뜨리면서 아들의 가슴에 올려놓으라고 당부한다. 혼령들은 신에게 감사하고, 그의 당부대로 그 쪽지를 처리하고 사라진다(93-122).

잠에서 깨어난 Posthumus는 잠이 그에게 부모님과 두 동생들을 보여준 은혜에 감사한다. 그는 귀한 쪽지를 발견하고 그 속의 내용이 더 좋은 약속이기를 기대한다. 그 내용은 사자새끼('lion's whelp')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발견하여 부드러운 공기에 감 싸이고('be embrac'd by a piece of tender air'), 가지들을 잘린('lopp'd branches') 웅장한 시다 나무('a stately cedar')가 죽었다가 소생하듯이 Posthumus는 불행을 끝내고, 영국은 좋은 운수로 평화와 풍요 속에 번영하게 된다는 것이었다(138-44). 그러나 비유로 차 있는 이 내용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문적인 해독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암호문 처럼 되어 있는 쪽지를 읽어본 Posthumus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내용을 풀이할 수 없으나 자신과의 유사성 때문에 그것을 고이 간직하겠다고 말한다. 간수가 들어와 Posthumus에게 교수형이 곧 집행될 것이라면서 준비는 되었는가 고 묻자 그는 간수들이 사는 것이 즐거운 이상으로 죽는 것이 즐겁다고 대답한다. 처형을 앞두고 이렇게 태평한 사형수도 처음 본다는 듯 간수들은 대단한 농이라고('What an infinite mock is this...?', 188) 코웃음치기가 바쁘게 사자가 들어와 죄수의 속박을 풀리는 왕의 영을 전한다. Jupiter 신이 남긴 암호문은 5막 5장에서 Posthumus의 부탁으로 점쟁이 Philarmonus에 의해 해독된다. 즉, 'the lion's whelp'는 'Leo-natus'로서 Posthumus의 성 Leonatus를 의미하며, 'the piece of tender air'는 Cymbeline 왕의 유덕한 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유덕한 딸은 mollis aer[gentle air]로 불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mulier[woman]란

용어로 부르는데, 결국 이 말은 가장 지조 있는 아내('the most constant wife')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a stately cedar'는 Cymbeline 왕을 뜻하며, 'lopp'd branches'는 그의 두 왕자들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소생하여 다시 시다 나무에 접속됨으로써 자손이 영국의 평화와 풍요를 약속한다는 것이다(443-58).

## II

*Macbeth*의 4막 1장에서 세 마녀들은 주술로 세 유령들(Apparitions)을 불러낸다. 그 중의 둘은 생존해 있는, 주인공의 정적이며, 원수인 Macduff와 Malcolm의 유령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다른 유령들도 보여준다. 마녀들의 주술 가마솥이 갑자기 가라앉고, 마녀들의 명에 따라 8명의 왕들—여덟 번째 왕은 손에 거울[마술 거울?]을 들음—과 Banquo의 상이 차례로 떠오른다. 이들을 Macbeth는 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Banquo의 혼령을 인식하고, 다음으로 여덟 번째 왕이 들고 나온 거울 속에 더 많은 왕들이 비추이는 것을 본다. 이 중에서 그는 두 번 왕관을 쓴 바 있는 James 왕을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머리를 한 Banquo가 미소를 지우며 거울에 비친 왕들이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본다. 혼령들은 이후 사라진다.

물론 Banquo의 혼령은 이보다 앞서 3막 4장 만찬 장면에서 두 번 나타난 바 있다. 만찬초대를 받고 참석을 약속한 바 있는 Banquo는 죽은 몸이지만 이를 이행한 것이다. 죽은 사람은 죽기 전에 초대받은 만찬에 참석한다는 믿음이 당시 있었는데, 이것은 오라는 분부를 받아야 혼령들은 비로소 나타날 수 있었다는 당시의 혼령믿음과도 통하는 사실이다. Banquo의 혼령은 Macbeth가 문간에서 자신을 살해한 Macbeth의 청부 살인자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등장하여 그의 자리에 가 앉는다. Macbeth는 부인과 Lennox의 권에 따라 착석하려다 말고 만석이 되어 있다면서 입석한 사람들의 귀에는 헛소리로 들리는 말('Thou canst not say I did it; never shake/Thy gory locks at me', 49-50)'을 한

다. Macbeth의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자기폭로의 말이 되고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혼령이 살해당할 때 입은 상처들을 그대로 지니고 나타난다는 당시의 혼령 믿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Macbeth의 자기폭로의 말은 계속된다. 부인이 만찬 장을 떠나가려는 신하들을 만류하면서 남편에게 당신도 남자냐고 편잔의 말을 하자 그는 자신이야말로 악마도 놀랄 저 것을 감이 쳐다보는 대담한 사내라고 말한다. 이에 부인은 참 좋은 꼴이라고 계속 편잔을 주면서 그것은 Duncan이 있는 곳으로 Macbeth를 인도했다던 공중에 뿔혀 있던 단도처럼 알고 보면 남편의 두려움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 말한다(59-62행). 그러나 Macbeth는 혼령이 있는 곳을 가리키며 저기 좀 보라고 하면서 납골당과 무덤이 이미 죽어 매장된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고 있으니 차라리 술개들에게 시체를 내주는 것이 좋지 매장의 의미가 없다(58-9; 67-72)고 계속 자기폭로의 말을 한다. 이어 그는 혼령이 퇴장한 다음에도 이전에도 살인들은 있었고, 두개골이 박살나면 그것으로 사람은 죽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머리에 20군데의 치명상을 입었어도 나를 의자에서 밀어내니 괴이한 살인 건이라(74-82행)고 결정적인 자기폭로의 말을 한다.

제정신을 되찾은 Macbeth가 좌 중에 건배를 제의할 때 다시 혼령이 등장한다. 혼령의 재등장 역시 Macbeth로 하여금 자기폭로의 말을 계속하게 만든다. ‘꺼져! 흠이 너를 묻어버릴 거다. 골수가 빠지고, 피가 식었으며, 네 동공은 이미 없어져 눈을 부릅떠도 허사야!’(92-5)라면서 Macbeth는 자신도 어느 남자에 못지 않게 대답하여 사나운 러시아 곰, 사나운 하케이니아의 호랑이 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 참아낼 수 있으나 제발 그 모습만큼은 견딜 수 없다면서 혼령에게 꺼져달라고 부탁한다(98-105). 그는 이 혼령을 그림자, 실존하지 않는 모조품(‘horrible shadow’, 105; ‘unreal mock’ry’, 106)으로 칭한다. Macbeth는 2막 1장에서 상상의 단도(dagger)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긴 독백(33-61)을 한 바 있다. 그는 이 단도를, Whitmore의 말을 빌리면, ‘그의 상상력의 창작물(a figment of his imagination)’로,<sup>6)</sup> 곧 실존하지 않는 마음속의 단도(‘A dagger of the mind, a false creation’, 38; ‘There’s no such thing’, 47)로

칭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가는 길과 사용할 도구를 안내하고 있다고 그는 풀이했었다(42-3). Macbeth는 몸서리나는 광경('such sights', 113)을 다른 사람들도 본 줄 알고 무서워 창백해 진 자신의 안색과는 달리 자연대로의 혈색을 지닌 그들의 용기를 부러워한다(111-15). Rosse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슨 '광경' 말씀인가고 묻자 Lady Macbeth는 질문을 하면 남편은 더욱 악화된다면서 더 이상의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중단시키고 만찬 객들을 모두 귀가시킨다.

Banquo의 혼령은 그의 죽음의 장본인인 Macbeth의 눈에만 보이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말한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Moorman은 “침묵이 말보다 훨씬 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silence is far more appalling than speech)”란 말로 침묵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지적했다.<sup>7)</sup> 결과적으로 Banquo의 혼령은 Macbeth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심리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Macbeth가 Banquo의 사망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연회장에 모인 고관백작 모두에게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것의 실체(reality)를 확인 받는 결과도 낳았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부인과 단 둘이 남았을 때 Macbeth는 Banquo의 혼령을 살인을 많이 해보지 않은 초심자로서 습관화가 덜 되어 있음으로써 생긴 착각, ‘이상한 자기 기만(strange and self-abuse’, 3. 4. 141) 때문으로 돌리는 듯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이미 여러 사람의 마음 속에도 심어져서 부인될 수 없게 된 것이다. 혼령 앞에서 그렇게 떨던 그가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신빙성과 설득력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가 환상을 본 것이란 부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여기 서 있듯이 분명히 나는 그자를 보았소(If I stand here, I saw him’, 3.4. 73)라고 Banquo의 혼령을 본 것을 계속 확인해 주고 있다. 그는 자

6) Charles Edward Whitmore, *The Supernatural in Trage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15), p. 257. 'figment'란 용어를 Shakespeare의 혼령과 관련해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마도 'the ghosts of Richard's victims are the figments of a coward conscience'라고 말한 F. W. Moorman('Shakespeare's Ghosts', *MLR*, Vol. I, No. 3, April 1906, p. 196)이 아닌가 한다.

7) F. W. Moorman, 'Shakespeare's Ghosts', *MLR*, Vol. I, No. 3 (April 1906), p. 195.



기의 초청에 이유 없이 감히 불참한 Macduff의 처리문제도 있었지만 혼령이 사라지자 세 마녀를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가서 최악의 수단으로 최악의 것을 알아보겠다는 결의를 말한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를 위해서 다른 고려들은 일체 배제하겠다는(3.4. 131-35)는 말이 이를 증거 한다.

혼령이 사라지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자 Macbeth는 ‘그것은 피를 요구한 다 더라. 피는 피를 부르는 법이지(121행)’, 곧 피 값은 피로써 갚는다는 격언적인 진실을 떠올리면서 제아무리 내밀한 살인이라도 움직이는 돌과 말하는 나무, 각종 말하는 새들을 이용하는 점 께(‘Augures’)로 드러난다는 말을 한다. 적어도 이러한 역할을 Banquo의 혼령이 하여 이 비극에 기여하도록 세익스피어는 혼령이란 초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것이다.

Banquo의 혼령 장면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절묘한 세익스피어의 필치의 결과인가를 깨닫고 그의 천재적 극작술에 감탄하게 된다. Macbeth는 원래 전문적인 살인자들을 고용하여 만찬에 참석하려고 오는 Banquo를 살해하도록 꾸뻬던 것이다. 그는 Banquo에게 만찬에 필히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응낙한 Banquo는 그후 살해되지만 혼령으로서 참석함으로써 약속을 지켰다. 이것은 이 극에 충만한 아이러니 중 최대의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는 Macbeth가 자기를 살해한 폭군이라는 사실을 Macbeth 자신이 고관백작들에게 고백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폭로하는 것의 수 배 이상의 효과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살해한 대가를 Macbeth로 하여금 톡톡히 치르게 했다. 눈은 눈으로의 복수는 Macbeth를 출세시킨 초자연적인 세력이 대신 담당할 것이므로 복수-혼령이 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혼령은 살해당할 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자체로 자신을 죽인 원수 Macbeth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공포와 위협을 가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Banquo의 혼령이 말하도록 촉구 받았어도 하지 않은 것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며, Hamlet의 부친과는 달리 극의 액션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 Stoll의 해석에는 동의하기 힘들다.<sup>8)</sup>

8) Stoll, p. 210.

## III

R3와 JC의 혼령은 유사한 데가 있다. R3의 5막 3장에서 Richard에게 살해당한 Edward 왕자, Henry VI, Clarence, Rivers, Grey, Vaughan, Hastings, 두 젊은 왕자들, Lady Anne 및 Buckingham의 혼령들은 Bosworth에서 Richmond와의 결전을 앞두고 들뜬 막사에서 잠자는 Richard 왕의 꿈과 그의 라이벌 Richmond의 꿈속에 차례로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들을 살해한 데 대해서 Richard를 괴롭히면서 절망하고 죽으라고 촉구하는 한편 Richmond에게는 승리와 생존을 기원해 준다. 그러면 보다 자세히 자초지종을 살펴본다.

Richard 왕은 피곤한 몸으로 막사로 들어와 저녁도 사양하고 잉크와 종이를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입을 투구가 막사 안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도 묻는다. 또 그는 똑똑하고 신임할 수 있는 자들로 보초를 세우고, 종달새 소리와 더불어 내일 아침에 기상하고, 다른 부대에 전령을 보내 일출 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는 등의 지시들을 여러 지휘관들에게 내린다. 그는 자신의 술잔('a bowl of wine', 63)을 채우고, 자신을 위해 보초를 세우고, 내일의 전투를 위해 그의 백마 Surrey에 안장을 채워놓을 것이며, 그의 창은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라고 Ratcliffe에게 당부한다. Northumberland, Surrey 등이 일몰 때 부대를 순시하면서 병졸들의 사기를 올리고 있다는 Ratcliffe의 말을 듣고 Richard는 만족한 나머지 술 한잔('a bowl of wine')을 달라고 말하고, 예전과는 달리 정신이 둔해지고, 마음도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 번 더 잉크와 종이가 준비되었는지를 챙기고, 보초 잘 보도록 지시 하라면서 Ratcliffe에게도 이제 나가도록 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야밤중에 ('about the mid of night', 77) 막사에 와서 무장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머뭇거리는 Radcliffe에게 그는 가보라니까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는 투로 말한다. Radcliffe는 떠나고, Richard 왕은 잠든다. 밤이 깊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술기운까지 합해서 졸음이 와 드디어 잠 들 때가 혼령이 나타나기에 알맞은 분위기와 시간이다.

같은 시간 Richmond의 진지에서는 역시 내일의 결전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

를 하면서 서로의 행운과 신의 도움을 빈다('Be valiant, and speed well!', 102). Richmond는 졸음 때문에 내일 승리의 날개로써 말을 탈 때 지장을 줄까 염려하여 잠을 좀 자면서 여러 근심 걱정도 없애 보겠다고 말하면서 지휘관들과 헤어진다. 홀로 남은 Richmond는 부대장 격인 하나님에게 병사들에게 은혜의 눈으로 내려다보시어 적수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려 그들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응징의 도구로 삼아주심으로써 승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드린다. 끝으로 그는 잠들기 전에 잠들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천거한다면서 자나깨나 항상 자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를 모두 마치고 잠든다(108-17행).

Henry VI의 Edward 왕자의 혼령이 제일 먼저 잠자는 Richard와 Richmond에게 나타난다. 전자에게 혼령은 내일 그의 영혼을 무겁게 압박하겠다고 Tewksbury 전투에서 한창 젊은 나이인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인 사실을 생각해 보고 절망하여 죽어라('Despair therefore and die!', 120)고 복수심으로 찬 말을 한다. 한편 이 혼령은 Richmond에게 나타나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면서 그를 위해 도살당한 왕자들의 원혼들이 싸워주겠다고 다짐한다('the wronged souls/Of butchered princes fight in thy behalf', 121-22). 다음으로 Henry VI의 혼령이 나타나 역시 Richard에게는 런던 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적법적인 임금을 그가 치명적인 칼질로 살해한 것을 언급하며, 절망해 죽으라고 두 번이나 말한다('despair and die'). 한편 그도 유덕한 Richmond에게는 정복자가 꼭 되라고 말하고, 자신이 원래 그를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을 상기시키며 'Live and flourish!'(130)라고 격려해준다. 세 번째로 Clarence의 혼령이 나타난다. 그는 내일 Richard의 영혼을 무겁게 압박하겠다고 Edward와 같은 저주를 하고, 역시 자신이 그에게 살해된 사연을 말하면서 끝으로 'Despair and die'를 말한다. Richmond에게는 그 역시 격려의 말을 해준다. Richard로부터 불의를 당한 York 가의 Lancaster 가의 후손인 Richmond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천사들이 그의 전투를 지켜줄 것이니 'Live and flourish!'(140)란 말로 격려한다. 이어서 Rivers, Grey, Vaughan의 혼령들이 나타나 차례로 Richard에게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해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절망하여 죽으라고 저주한다. 그리고 이

들 모두는 Richmond에게 나타나 잠에서 깨어나 승전하라고 격려해준다. 이어서 두 젊은 왕자들의 혼령들이 등장하여 Richard에게 tap에서 질식사한 조카들을 생각해보라면서 필히 그의 가슴속에 들어가 그를 눌러 파멸, 수치 및 죽음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한다. 이 조카들의 혼들도 숙부 Richard가 절망하여 사망하게 할 것이라면서 그를 저주한다. 한편 Richmond에게 이들은 숙면을 하고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라 격려하고, 그를 천사들이 짐승 같은 Richard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원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행복한 왕들을 낳아달라고 부탁하고, Edward의 불행한 아들들이 Richmond의 번영을 이렇게 빌고 있다면서 퇴장한다. 다음에는 Hastings와 Richard의 아내 Lady Anne[Edward 황태자의 미망인]의 혼령이 차례로 나타난다. 전자는 Richard에게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죄인이므로 피의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라고 악담한다. 그도 '절망하여 죽어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Richmond에게는 그도 잠에서 깨어나 싸워서 아름다운 영국을 위해서 정복하라고 격려해준다. Anne의 혼령은 조용히 한 번도 합방해본 적이 없는 아내가 이제 남편의 잠을 온갖 근심 걱정('perturbations')으로 채우겠다고 Richard에게 악담하고 내일 전투에서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절망하여 죽으라고 저주한다. 한편 그녀는 Richmond에게 평안한 수면 속에서 성공과 행복한 승리의 꿈을 꾸라고 적수의 아내가 기원한다고 말한다. 끝으로 Buckingham의 혼령은 Richard에게 그를 도와 왕관을 쓰게 한 최초의 사람이요, 그의 독재를 느낀 맨 마지막 사람으로서 말한다면서 내일의 전투에서 자기를 생각함으로써 그 무서운 죄악 속에서 죽으라고 저주한다. 피를 낸 범행들과 죽음들을 계속 꿈꾸면서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죽으라고 그는 거둬 Richard를 저주한다. 그도 Richmond에게는 실망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의 편에서 싸워 Richard는 그의 오만의 절정에서 멸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혼령들이 사라지자 Richard는 꿈을 꾸다 놀라 일어난다. 그는 다른 말을 달라든가 상처를 동여매 달라는 등 헛소리하다가 꿈인 줄을 깨닫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비겁한 양심을 야속해 한다('O coward conscience, how dost thou afflict me!', 179). 그가 이 때 촛불이 청색을 보이면서 탄다('The lights

burn blue. It is now dead midnight', 180)고 다시 촛불이 본래의 밝기를 회복한 것을 말하는 것은 혼령이 사라짐과 동시에 촛불도 원상을 복구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물론 당시의 혼령믿음의 하나였다.

이 혼령들이 Richard와 Richmond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Richard는 우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살인죄를 범한 악한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자신의 죽음에 동정을 표할 자도 없다면서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동정을 하지 않는데 누가 그러겠는가고 반문한다. 그리고 그는 혼령들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받은 사실도 드러낸다: 'Methought the souls of all that I had murther'd/ Came to my tent, and every one did threat/To-morrow's vengeance on the head of Richard'(204-6). 그러나 혼령들의 꿈속의 방문이 그에게 가져 온 정신적인 타격은 거의 치명적이다. 그는 Ratcliffe에게 무서운 꿈을 꾸었다면서 우군의 배반을 염려하며, 간밤의 혼령들이 Richmond가 이끄는 천군만마('the substance of ten thousand soldiers/Armed in proof and led by shallow Richmond', 5.3. 218-9)보다 더 큰 타격을 그의 정신에 입힌 것을 실토했다. 한편 Richmond는 잘 주무셨느냐는 휘하 지휘관들의 인사를 받고 생전 그렇게 달콤한 잠과 그렇게 상서로운 예언적인 꿈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Richard가 살해한 사람들의 혼들이 막사로 와서 승전을 빌어주었다(230-31행)고 말한다. 이런 기분 좋은 꿈을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이 매우 기쁘다고 Richmond는 말한다. 혼령들은 예언을 했을 뿐 이것을 성취시키는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예언과 저주와 격려가 두 적수에게 초래한 결과는 이와 같이 매우 대조적인 반응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양자의 반응을 볼 때 전투의 승패는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다. 과연 Bosworth 전투는 Richard의 완전 패퇴와 Richmond의 완승으로 끝난다. 이 극의 혼령들은 이 두 적수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인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데 기여했다. Shakespeare의 출전인 Holinshed에는 혼령들이 행렬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 요소를 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오로지 세익스피어 자신의 독창성이었다. 그는 이와 유사한 혼령의 활

용숨씨를 *JC*에서도 보여준다.

*JC*에서는 Caesar가 그의 왼팔 격인 Brutus와 그 일당의 역모로 살해당한 후에 혼령으로서 지상에 귀환하여 Brutus의 꿈속에 나타난다. 혼령이 나타난 상황과 장소가 Brutus와 그의 휘하 병사들이 Antony와 그의 병사들과 겨루게 될 Philippi에서의 결전을 앞 둔 야전 막사였다는 것이 *R3*의 경우와 흡사하다.

출전인 Plutarch에도 혼령출현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혼령이 출현하자 Brutus가 대답하게 그에게 신이냐 인간이냐,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를 물었고, 혼령은 자신은 부르터스의 악령이며, 부르터스는 필리피 전투 장에서 다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I am thy evil spirit, Brutus, and thou shalt see me by the city of Philippi')고 말했고, 이에 Brutus는 그래, 그러면 다시 그대를 보게 되겠군('Well: I shall see you again')하고 대꾸하였는데 혼령은 곧 사라졌다고만 되어있다. 이와 같은 간단명료한 출전의 사실기록을 Shakespeare는 극을 위해 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Philippi 결전의 전날 밤의 Brutus의 막사 안이다. 막사로 와 있던 전우들이 하나 둘씩 다 그들의 막사로 떠나가고, 매부와 처남 간인 Brutus와 Cassius는 잠시 그들을 심정적으로 갈라놓았던 언짢은 감정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는다. Brutus는 심부름하는 소년인 Lucius에게 술 한 사발('a bowl of wine')을 청한다. Brutus가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그리고 누이가 사망했다는 돌연한 사실에 Cassius는 오히려 미안하고 슬퍼서 어쩔 줄 몰라하며, 결국 그들은 화해하여 예전의 동지로 돌아간다. 이들은 술과 촛불을 들고 등장한 Lucius로부터 술을 받아 화해술을 마신다. Titinius와 Messala가 들어오자 이들은 걱정을 검토하다가 이윽고 Brutus만 남고 모두 취침을 위해 퇴장한다. Brutus는 Lucius가 가져온 잠옷을 갈아입고, 그의 악기의 행방을 묻는다. Lucius가 막사 안에 있다고 대답하자 Brutus는 그의 졸리는 목소리('thou speak'st drowsily', 240)를 지적하면서 곧 쉬게 해줄 테니 졸리는 눈('thy heavy eyes', 256)을 잠시만 참고 연주를 해달라고 청한다. 음악이 흐르자 그는 'a sleepy tune'(267)이라며, 그 자신이 즐겁게 된다('O murd'rous slumber!', 267). 악기를 뜯다가 그대로 잠든 Lucius에게서 악기를 치

운 후 Brutus는 읽던 책을 다시 집어들고 접어놓은 페이지를 찾으려 여의치 못한 듯 촛불이 너무 희미하게 탄다('How ill this taper burns!', 275)고 불평한다. 우리는 앞서 이미 여러 번 음악이 재발 중에 흘러나오면서 줄리우스, 시력이 희미해지고 촛불이 희미해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혼령이 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임을 알리는 것이란 점에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또 혼령 앞에서는 촛불들이 희미해진다는 민속적 믿음이 있었다. Caesar의 혼령이 다가오자 그는 시야가 흐려져 괴상망측한 유령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하나 확신하지 못한다. 그는 다가오는 유령에게 묻는다:

Art thou some god, some angel, or some devil,  
That mak'st my blood cold, and my hair to stare?  
Speak to me what thou art. (4. 3. 279-81)

(넌 신인가, 천사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내 피를 이렇게 싸늘하게 식히고  
머리카락을 곤두세우니?! 네 신원을 내게 밝혀라.)

Brutus가 먼저 말을 걸고 질문하니 혼령은 비로소 입을 연다. 여기서부터 Shakespeare가 기록한 Brutus와 혼령과의 대화는 출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Ghost.* Thy evil spirit, Brutus(너의 악령이다, 부르터스야).

*Bru.* Why com'st thou?(왜 왔는가?)

*Ghost.* To tell thee thou shalt see me at Philippi.

(네가 나를 필리피에서 보게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Bru.* Well; then I shall see thee again?(그래, 그렇다면 내 다시 널 보겠군?)

*Ghost.* Ay, at Philippi(그렇다, 필리피에서다)..

*Bru.* Why, I will see thee at Philippi then(그래, 그럼 내 널 필리피에서 보겠다).

[*Exit Ghost*(혼령 퇴장). (4. 3. 282-86)]

Brutus는 매우 대범하게 혼령에게 말하였으나 혼령이 사라진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Caesar의 혼령의 출현이 적어도 심적으로는, 곧 사기 면에서는 그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었음을 'Now I have taken heart thou vanishest(네가 사라지니 이제 기운이 나는군)'(287)라는 그의 반응과 당황하여 이 사람 저 사

람을 불러내는 것('Boy, Lucius! Varrus! Claudio! Sirs, awake!', 289-90)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후에도 정신적인 안정을 잃고, 잠을 깨라는 상사의 말에 따라 잠자리에서 일어난 Lucius, Varrus, Claudio에게 각각 꿈을 꾸느라고 것처럼 크게 소리냈으나, 뭐 본 것은 없느냐는 황당하게 들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허둥대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은 밝았다. Antony와 Octavius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Brutus와 Cassius의 군을 패퇴시켰다. Brutus와 더불어 Caesar 살해를 주도한 Cassius는 친구 Titinius가 적군에게 생포되는 것을 보고 전의를 잃고 너무 오래 산 겁쟁이로 자신을 표현하면서(5.2. 34-5) 그가 베푼 각별한 은혜를 갚아야 할 입장에 있는 하인 Pindarus에게 Caesar를 찔렀던 자신의 칼을 내주면서 찔러 죽여달라고 당부한다.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은 역시 Caesar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결국 자신은 그를 찔렀던 바로 그 칼로 그에게 복수 당했다는 것이다('Caesar, thou art reveng'd./Even with the sword that kill'd thee', 5.2. 45-6).

Brutus도 역시 Philippi 전투에서 이런 식으로 기동 같은 두 전우인 Cassius와 Titinius를 잃는 등 대패하자 생전이나 사후를 막론하고 여전히 막강한 Julius Caesar를 절감한다:

O Julius Caesar, thou art mighty yet!(오, 줄리어스 시저, 그대는 아직도 막강하오!)  
 Thy spirit walks abroad, and turns our swords(그대의 영은 무덤 밖에서 걸어다니고)  
 In our own proper entrails(우리의 칼을 우리 자신의 창자로 돌려놓소). (5. 3. 94-6)

Caesar의 혼령이 Brutus에 미친 결과는 이것만이 아니다. Philippi 결전에서 패퇴한 Brutus는 5막 5장에서 하인들인 Clitus와 Dardanius에게 각각 귓속말로 겸으로 자신을 찔러 죽여달라고 부탁하나 거절당한다. 그는 학교 동창인 Voluminus를 불러서 동일한 부탁을 하기 전에 Caesar의 혼령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이 그에게 Sardis와 Philippi에서 각각 한 번씩 모두 두 번 나타났음을 그는 말한다. 물론 이것은 혼령이 약속대로 Philippi에서 Brutus에게 나타났음을 함축한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한다:



The ghost of Caesar hath appear'd to me(시저의 혼령이 나에게 나타났소,  
 Two several times by night; at Sardis once(두번 각기 다른 밤에. 한번은 사디에서),  
 And this last night, here in Philippi fields(그리고 바로 간밤 여기 필리피 전지에서).  
 I know my hour is come(나는 알고 있소, 내 시간이 다 된 것을). (5. 5. 17-20)

죽을 때가 온 것을 알고 있다는 Brutus의 말은 Caesar의 복수 혼령이 이룩한 승리의 복수를 뜻하는 것이다. Voluminus도 Brutus가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검 손잡이를 꼭 붙잡음으로써 거기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그것은 친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거절한다('That's not an office for a friend', 29). 그러나 그는 자다가 막 일어난 하인인 Strato가 그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소원 성취하게 되는데, 죽으면서 Brutus는 Caesar(의 혼령)에게 이제 진정 하라('Caesar, now be still', 5.5. 50)면서 'I kill'd not thee with half so good a will(내 그대를 죽일 때 이 반만큼의 마음내김도 없었소)'(51)이라 말한다. 이것은 Brutus가 죽는 순간까지도 죽은 Caesar의 위력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Cumberland Clark는 Brutus의 말 'Caesar, now be still'이 그가 혼령의 말 'thou shalt see me at Philippi'를 자살하여 자기와 동일한 존재의 차원, 곧 저승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준다고 그럴듯한 풀이를 했다.<sup>9)</sup>

Clark는 죽은 Caesar가 생전의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차고, 우유 부단함과 아첨의 제물이었던 Caesar와는 달리 극에서 막강한 영향력('an all-important influence in the drama')을 지니고 있음을 역시 그럴듯한 언어로 표현했다.<sup>10)</sup> Caesar는 극의 전반을 생존한 인간으로서의 임재(mortal presence)로, 후반을 복수혼령으로서의 임재(ghostly presence)로 극 전체를 주도했기 때문에 실상 이 비극을 통합하는 원리(unifying principle)가 되어 있다.

결국 혼령은 그를 살해한 원수인 Brutus에게 결전을 앞둔 시점에서 나타나 그의 사기를 죽이고, 전의를 꺾는 데 영향을 주어 Philippi 전투에서 패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살해한 무리의 두 주도자들을 다 자살로 생을 마감시켰다. Brutus는 죽는 마당에서도 Caesar의 혼령을 의식하며, 그 그

9) Clark, p. 128.

10) 상동.

립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도 Caesar와 관련된 것이란 점은 혼령이 이 극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하도록 셰익스피어가 극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Caesar의 혼령이 Brutus[꿈속에—그는 아직 취침 전으로 되어 있으나 졸리 운 음악에 영향을 받아 읽던 책 페이지를 잘 찾지 못하는 등 졸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 주관적인 혼령으로 분류되나 셰익스피어는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러 면에서 그것의 객관성을, 그것의 실존을 확립시키는 숨씨를 발휘했다.

Caesar의 혼령도 말을 먼저 하지 못하고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야 말을 하며, 음악이 혼령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처럼 되어 있으며, 사방이 죽은 듯이 고요하여 사람들에게는 잠이 찾아오는 한밤중에 나타나고, 그가 나타날 때는 촛불이 희미해지며, 살해당한 자의 혼령은 복수를 할 때까지 영민을 못하고 지상을 나뉘는 16세기 셰익스피어 시대의 민간 믿음의 ‘conventional ghost’와 일치한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다시 말하면 목격자가 한 사람 뿐인 혼령들, 곧 주관적인 혼령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과는 유를 달리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목격하는 객관적인 혼령인 *Hamlet*의 혼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전 비극들과 셰익스피어 이전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들 속에 등장하는 혼령들, 특히 복수 혼령들을 개관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셰익스피어의 혼령들은 이 혼령들에 영국 고유의 혼령 믿음들을 극적으로 반영하여 발전시킨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의 산물들이기 때문이다.

## IV

극작품에 나오는 혼령(dramatic ghost)의 효시는 Aeschylus의 *Persae(Persians)*에 나오는 Darius의 혼령과 *Eumenides*에 나오는 Clytemnestra의 혼령이다. 후자는 최초의 복수 혼령(revenge-ghost)이다. 이 혼령은 물론 인간에게는 나타나

지 않고 복수의 여신들인 Furies에게 꿈 속에 나타나 복수를 새로 부추긴 후에 사라진다. 현존하는 Sophocles의 극에는 혼령이 들어 있지 않으며, Euripides의 극에서는 한 개의 예가 있다. 그것은 *Hecuba*에 등장하는 Polydorus의 혼령으로서 Seneca에서 Shakespeare와 그의 동시대에 이르는 그 이후의 'dramatic ghosts'의 원형으로 볼릴 정도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혼령은 비극이 시작될 때까지 일어난 연쇄적 사건들과 이것들이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방향을 관객에게 알리는 이른바 서곡/서막의 기능을 하고 있는 'prologue-ghost'이기 때문이다.

Seneca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리스 비극(Attic tragedy)을 모방하여 동일한 소재의 비극들(*Octavia*가 유일한 예외)을 쓸 때 그는 Euripides의 prologue-ghost를 도입하였으나 여기에 Aeschylus의 revenge-ghost의 기능을 결합시켰다. 그의 *Thyestes*에 나오는 Tantalus의 혼령과 *Agamemnon*에 나오는 Thyestes의 혼령은, F. W. Moorman의 말을 빌리면, 유클리데스의 혼령 Euripidean Polydorus와 이스쿨러스의 혼령 Aeschylean Clytemnestra의 결합에서 나온 '자식(issue)'이다. Tantalus의 혼령이 복수의 여신(Fury) Megaera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Aeschylus의 *Eumenides*를 회상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는 Megaera가 황천 Tartarus에서 온 혼령을 반기고 자신을 저주하여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게 복수하도록 하는 것이 다름 뿐이다.<sup>11)</sup> 요컨대, 세네카의 혼령은 그의 액션의 범위를 서막에 국한시키면서 독자들에게 비극의 단서들을 알려주고, 복수란 말을 간간히 되풀이하는 것이다. Senecan ghost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자신의 거처인 Tartarus에서의 고통과 고문들(pains and tortures)을 기술하는 것이다. 자연 Erebus와 Acheron, Limbo-lake(의 유황불)에 대한 언급은 말할 것도 없고 Sisyphus의 바위, Ixion의 바퀴, Tantalus의 목마름(thirst) 혹은 배고픔(hunger) 등을 기술하는 데 허장성세적 호언장담(rant/bombast) 조와 과장법이 동원되었다. 이와 같은 세네카의 혼령의 영향으로 16세기 영국비극의 혼령들은, Hamlet의 말을 빌리면, 바닥관객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기 위해

11) F. W. Moorman, 'The Pre-Shakespearean Ghost', *Modern Language Review*, Vol. I, No. 2 (January 1906), p. 86.